

## 이상건축, 철도역사 프로젝트 6제

Railroad Station Project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이·상에서는  
지난 1996년부터 1999년까지 다수  
의 철도 역사 프로젝트를 수행하였다.  
대부분 그리 크지 않은 규모의 역사이  
지만 현상설계를 통한 프로젝트로서 6  
개의 역사를 소개한다.

기차는 어느 교통수단에 비하여 풍부한 코드를 갖고 있다. 고속도로를 보는 사람들의 마음과 철길을 보는 사람들의 감정은 아주 다르다. 은빛 평행선을 보면서 사람들은 쉽사리 떠남을 그리워하게 되고 고향을 생각하게 된다. 단순히 공간적인 감상뿐 아니라 추억과 낭만이라는 추상적인 감상에도 젖게 된다. 영화 '박하사탕'에서 그려지는 기차와 철길은 강렬하게 돌아가고 싶은 과거를 상징하는 코드로 쓰여지고 있다. 또 줄리델피가 주연하고 오스트리아의 빈이라는 낭만적인 도시를 무대로한 영화 '비포 더 선'은 우연하면서도 숙명적인 만남을 위한 훌륭한 장치로서 쓰여지고 있다. 그런 기차가 머무는 철도역은 또 어떤가. 설레이는 기다림의 장소이면서 애절한 이별의 장소로 기차역은 즐겨 사용되고 우리들에게 각인되어 있지 않은가.

철도역사 프로젝트는 기차와 철도역사

의 교통수단으로서의 순기능에만 머물 수 없는 성격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다. 이미 사람들은 철도역에 오면서 위에 열거한 감상들을 기대하고 오기 때문이다. 그러한 기대를 깨뜨릴 권리는 건축사에게 없음은 당연한 일이고, 따라서 철도역사는 그 역사가 위치한 장소성은 물론이고 철도와 철도역사가 갖고 있는 뿌리 깊은 사람들의 추억과 낭만을 읽어내어 만족시켜 주어야 하는 법이다.

장단역사는 남한 지역의 경의선 최북단 역사이다. 당연히 언제 지어질지 기약이 없는 역사이다. 이 역사의 바로 다음 정거장이 개성역이 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짐작이 될 것이다.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이라는 거대한 역사적 움직임이 전제되어야만 실현이 가능한 프로젝트인 것이다. 당연히 장단역사는 바로 남북의 화해와 통일에 대한 바람을 형상화한 역사가 되었다. 또한 주변의 비무장지대로 인한 훼손되지 않은 수려한 자연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는 장단역사만이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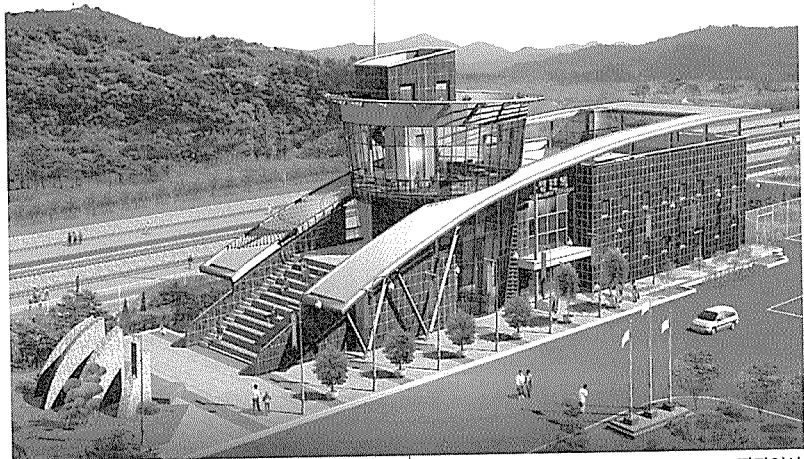
임진각역사는 장단역사 바로 아래에 위치하여 또 다른 시각으로의 접근이 요구된 역사였다. 정치적인 상황과는 별개로 언제든지 지어질 수 있는 역사이지만 이미 임진각 일대에 구성된 '통일관광지'의 허브공간으로서의 기능

이 요구되어지고 그에 따른 상징성 또한 필요한 역사이다.

월곶역사는 유명한 소래포구로부터 멀지 않은 월곶포구에 위치하고 있다. 이곳은 포구를 끼고 있어 풍부한 해산물이 거래되고 어패류를 찾는 식도락가들의 발걸음을 유혹하는 장소이기도 하다. 따라서 월곶역사는 이러한 포구의 바다 내음을 물씬 머금을 수 있는 주형상과 자료를 적용하기로 하였고 그 결과로 우리 나라 철도역사 중 유일하게 막, 즉 패브릭으로 지붕이 덮여지게 되었다. 대부분의 선상역사의 지붕이 금속재의 박스터널의 모양새를 갖춘것에 비하여 획기적인 형상의 역사가 될 것이다.

달월역사는 월곶역사 바로 아래쪽에 위치한 역사이다. 이 역사에 이전에는 수인선 협계가 지나 갔었다. 그냥 철도도 아니고 수인선 협계라면 그 공간의 풍부한 상징성은 배가 될 것이다. 역사의 이름도 옛날 그대로 달월역사가 아닌가. 때문에 이 역사는 아주 친근감 있는 재료와 조형을 갖추기로 했다. 따스한 색상과 자료, 그리고 달월이라는 표현을 즉물적으로 해석한 반달모양의 평면 매스는 사람들에게 쉽게 다가가는 코드로써 기능하게 될 것이다.

지제역사는 평택의 들판 한복판에 세워지는 역사이다. 평택은 예로부터 경기도 지방의 유명한 평야지대이며 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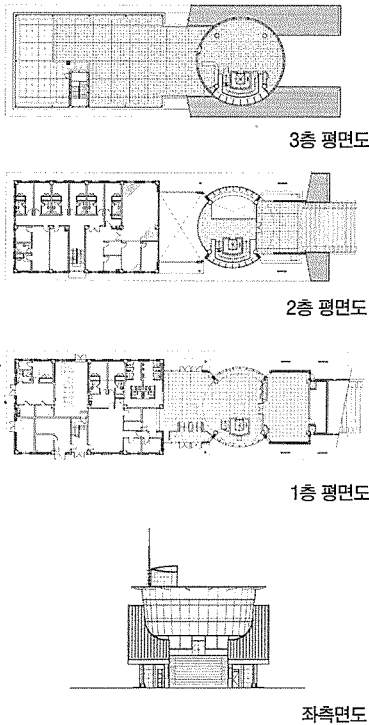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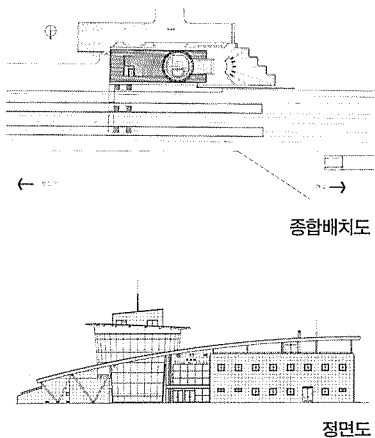


장단역사

창치대였다. 이런 들판에서는 바람이 거세다. 거칠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 바람에 순응하는 역사의 조형을 추구한 결과로 유선형의 역사가 되었다. 비록 현상공모에서 2등안이 되어 실현될 수 없는 안이 되었지만 시도해 볼만한 가치가 있는 안이었다고 생각한다. 진주라는 지역에 대해선 굳이 따로 설명을 할 필요는 없으리라. 잘 알려진 곳이거니와 그 지역 자체가 갖고 있는 사회적 역사적 콘텐츠가 풍부하며 그 인지도가 높기 때문이다. 이러한 곳일수록 상징적인 조형 모티브를 잡기가 수월치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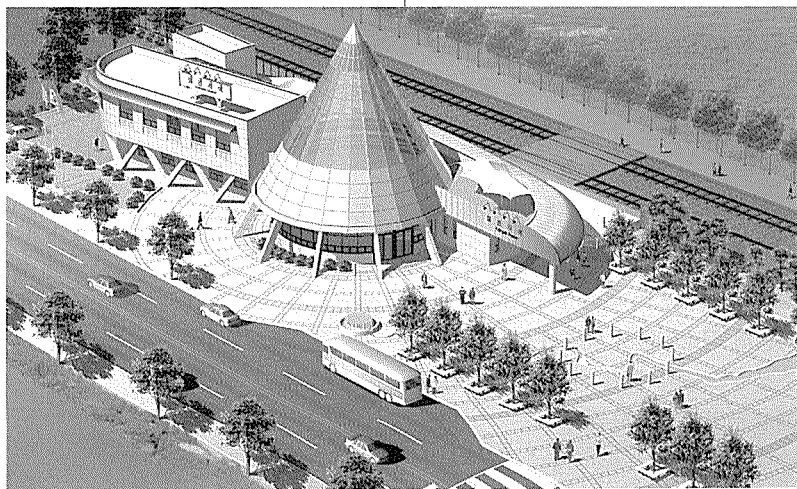
▶ 경의선 장단역사(강철희, 현상설계 당선작)

대지위치 경기도 파주시 장단읍 동장리 198번지  
 지역·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경량철골조(캐노피))  
 층수 지상 3층  
 건축면적 675.10㎡  
 연면적 1,282.73㎡  
 주차대수 12대  
 주요마감재 THK30 화강석 물갈기 THK24 복층유리  
 설계담당 김성호, 임영철, 조만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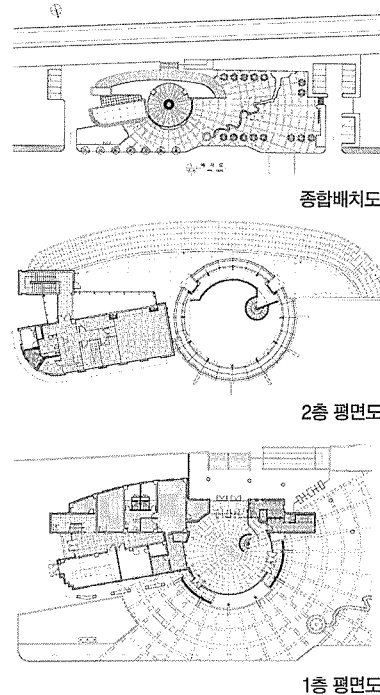
남한지역 경의선의 최북단 역사이다. 대지는 민통선정도가 아니라 비무장지대 한가운데 있다. 아마도 이 역사가 착공여부는 남북의 화해와 통일의 진척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 많은 상징성을 갖고 있는 사이트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굽어 있는 지붕의 선은 북녘을 향하고 있으며 이는 통일의 가교를 의미함과 아울러 상호존중의 몸짓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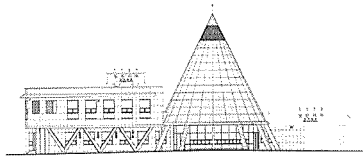
▶ 경의선 임진각역사(강철희+이동환, 현상설계 당선작)



임진각역사

대지위치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마정리 1265-3외  
 지역·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 철골조  
 층수 지상 2층  
 건축면적 781.31㎡  
 연면적 828.15㎡  
 주차대수 18대  
 주요마감재 외벽-THK30 화강석 물갈기 + THK4 AL 복합패널 + THK24.3파스텔접합복층유리  
 지붕-THK5.0 동판접기  
 설계담당 김광우, 김형중, 조정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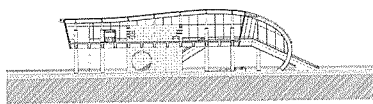
정면도

장단역사의 바로 전정거장이다. 현재 안보관광지로서 활용되고 있는 임진각 일대의 대중교통 중심이 될 역사이다. 원추형의 유리메스를 통해 24시간 통일을 염원하는 빛의 탑을 이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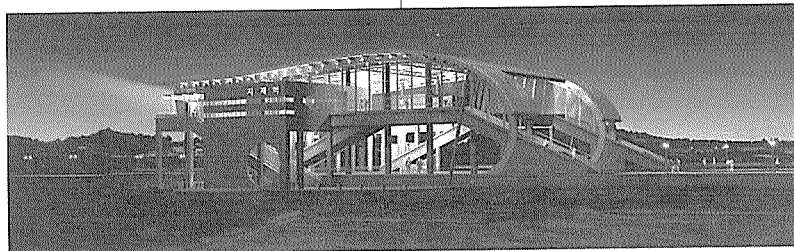
▶ **경부선 지제역사(강철희, 현상설계 우수작)**

대지위치	경기도 평택시 지제동
구조	철골,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
층수	지상 2층
건축면적	1,535.10㎡
연면적	1,741.23㎡
주차대수	13대(장애이용 1대)
주요마감재	외벽-THK3 알미늄쉬트 + THK18 복층유리 + 노출콘크리트 지붕-철골트러스 위 THK75 단열패널
설계담당	김성호, 조민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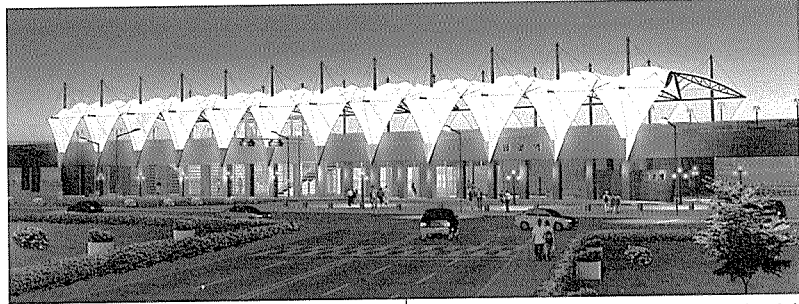
평택평야에서 서 있는 역사, 벌판에서 바람을 맞고 서 있는 역사는 강한 수평 선상의 시각적 초점을 갖고 그래서 유목적성 있는 강한 힘의 표현으로 유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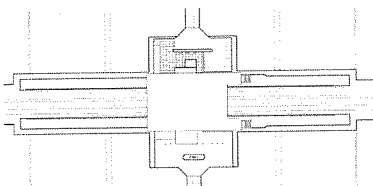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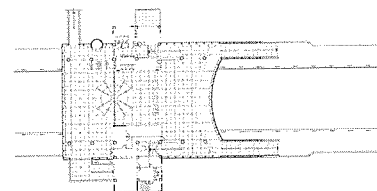
지제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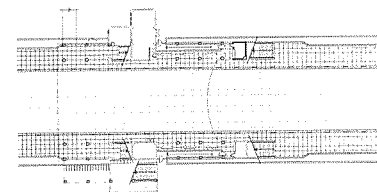
월곶역사



배치도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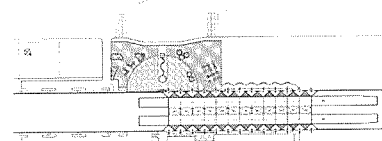
의 지붕을 취하고 있다. 남북의 축을 가진 선로와 동서로 이어진 도로의 교차점에 위치하여 분절된 대지를 투명성과 방향성을 통해 시각적으로 연결시키고자 하였다.

▶ **수인선 월곶역사(강철희+김상진, 현상설계 당선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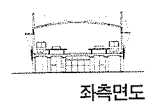
대지위치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미정리 1265-3 외
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 경량철골조 / 막구조
층수	지상 2층
건축면적	781.31㎡
연면적	5,377.50㎡
주차대수	115대(장애이용 4대 / 직원용 9대)
주요마감재	외벽-노출콘크리트 위 투빙 아크릴 페인트 +THK18 복층유리 지붕-PTEE 막
역사형식	선하역사
승강장 형식	상대식
승강장 규모	폭:7.5m, 길이:210m
설계담당	김성호, 임영철, 조민구

우리 나라 최초의 페브릭(막)이 사용된 철도역사가 될 월곶역사는 주변의 소래포구와 월곶포구에 의한 장소성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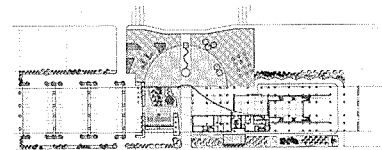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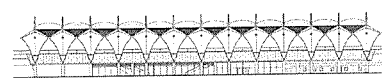
좌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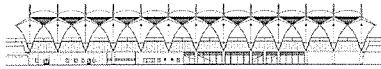
우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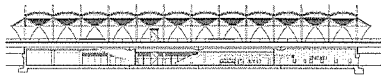
1층 평면도



정면도



배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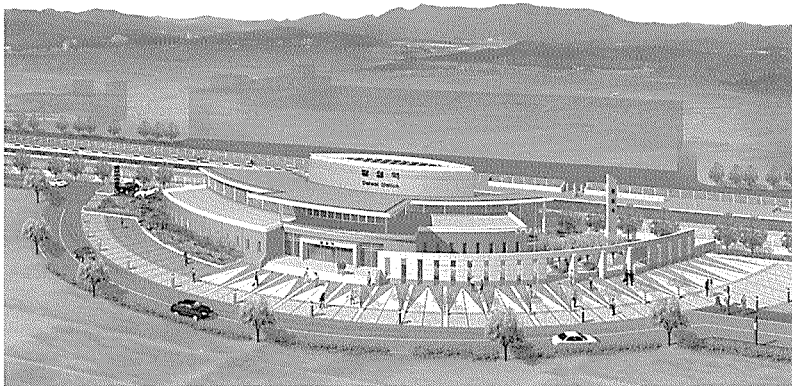


횡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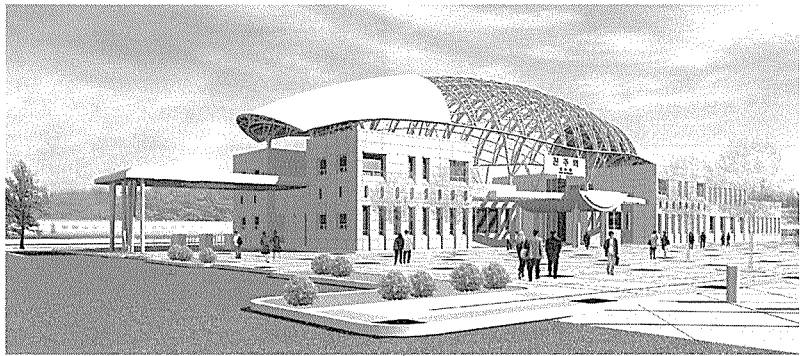
강하게 반영한 조형성을 갖고 있다. 포구에 오가는 배들에게 지금은 돛을 찾아 볼 순 없지만 배의 원형적 기호를 조형 모티브로 한 것은 심사위원들에게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항수를 나르고 원초적 기억을 더듬는 역사이고자 한다.

▶ 수인선 달월역사(강철희, 현상설계 당선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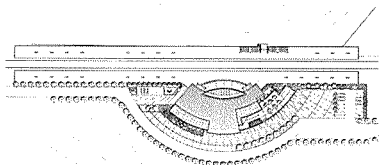
- 대지위치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마정리 1265-3 외
- 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개발제한구역
- 구조 철근콘크리트조/경량철골조
- 층수 지상 1층
- 연면적 845.38㎡(지하통로 제외)
- 주차대수 19대(장애인용 2대/직원용 5대)
- 주요마감재 외벽 - THK12 석기질 타일  
내벽 - THK80 단열패널  
(THK0.8 아연도착색 강판)
- 역사형식 지상역사
- 승강장 형식 상대식
- 승강장 규모 폭:7m, 길이:210m
- 설계담당 김성호, 서승규, 조만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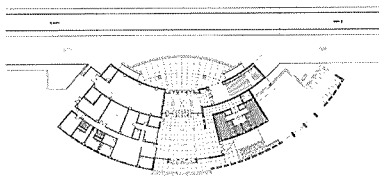
달월역사



진주역사



배치도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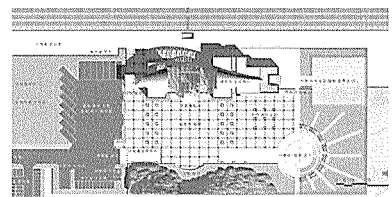


정면도

월곶역사와 인접한 자연녹지지역에 위치한 역사로 자연환경의 수용과 조화에 부합되는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그에 따른 매스 및 재료, 색상을 선정, 친근하고 부드러운, 그래서 머물고 싶어지는 역사이고자 한다.

▶ 경전선 진주역사(강철희+이동환, 현상설계 우수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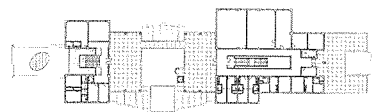
- 대지위치 경상남도 진주시 기좌동
- 구조 철근콘크리트조/철골조
- 층수 지상 2층
- 건축면적 1,673.54㎡
- 연면적 1,915.57㎡
- 주차대수 13대(장애인용 1대)
- 주요마감재 외벽 - 화강석 버너구이, 칼라복층유리  
지붕 - 평슬라브, 강관트러스  
+아연도강판
- 역사형식 지상역사
- 설계담당 유연희, 강신정



배치도



횡단면도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